

김훈은 '풍류'으로 일귀낸 매력적인 기행미학

이용한_시인·여행작가

"길은 인간의 것이므로 마을에서 마을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모든 길은 그 위를 가는 자가 주인인 것이어서 이 강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결혼과 친인척과 이웃은 흔히 상류와 하류 사이의 물가 길을 오가며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늙은 길은 기행가 아니고 로컬도 아니며 삶의 원리로서의 도도이다." (<시간과 강물-섬진강 덕치마을> 중에서)

무릇 여행가는 길의 미식가다. 길의 미식가는 혀 끝이 아닌 마음으로 길을 음미한다. 김훈은 그렇게 '풍류'이란 이름의 자전거와 함께 떠나 발아픈 시간을 고스란히 길에 바쳤다. 자전거라는 게 그렇다.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걷는 것보다는 빠르다. 자전거는 "몸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지만, 엔진이 갈 수 없는 모든 길을 간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과 사물과 아찔한 삶들이 자전거 위에서는 적당한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에는 휩 지나치지 않지만 적당히 숨이 가쁠 정도의 속도감이 있다. 그 정도의 속도감으로 그는 매력적인 문장의 고개도 유유히 넘어간다.

"봄의 흙은 험겁다. (중략) 언 땅이 녹고 햇볕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흙의 편능은 노곤하게 풀리면서 열린다. (중략) 열고 또 녹는 물의 싹들은 겨울 흙의 그 완강함을 흔들어서, 풀어진 흙 속에서는 숨이 탕 숙처럼 빛과 물기와 공기, 미로들이 퍼져나간다. (중략) 봄에 땅이 부푸는 사태는 음악에 가깝다." (<흙의 노래를 들어라-남해안 경작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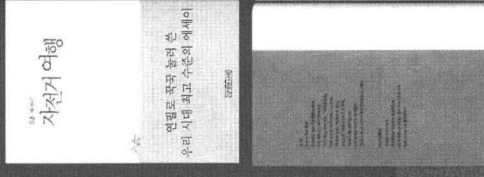
햇살에 반짝이는 풍류의 바퀴살과 힘껏 페달을 밟는 발바닥이 떠올린 동력으로 그는 시에 가까운 문장을 도처에 풀어놓는다. 그렇다고 그가 삶을 등지고 문필가의 힘을 빌어 문장의 재주만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 여행》에는 쓸쓸하고 안쓰럽고 외로운 삶, 그리고 느끼고 현실과 아쉬운 역사가 담

것들의 풍경에 잠기고 길에 뿌려진다. 만경강에서 바라본 깃벌의 뿔쭉한 삶이 그렇고, 고성외 불탄 소나무와 소백산 의풍마을의 매맞는 소가 그러하다. 그는 풍경과 사물과 삶을 길에서 얻은 노곤한 문장의 힘으로 화해시킨다.

알다시피 김훈은 소설가이며 기자이고, 한때는 편집국장이었다. 그런 그가 50세를 넘긴 나이에 자전거를 저어가며 엔진이 달지 않는 세상의 길들을 풀어 책을 옮겨 놓았다. 이 책에는 역사와 지리, 문학과 철학, 매 맞는 소와 때리는 인간의 사랑이 구구절절 차고 넘친다. 그래서 후자는 그의 《자전거 여행》을 두고 기행문학의 진수라고 표현했고, 나 또한 그것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김훈의 미학을 다시 따라하는 것도 우습겠지만, 모를지기 여행이란 '작가나 건축가처럼 치고 만들어 열개 틀 이루어야 하리라. 새로운 여행을 만들고, 발걸음하고, 개발하고, 엮어나야 할 여행가가 맨날 그 밤에 그 나뭇잎인 냥 많은 여행지를 지검도록 안내해서는'가를 뒤에 붙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소설가 김훈은 그가 사냥할지라도 진정한 여행자인 셈이다. 그의 책에서는 바람냄새, 흙냄새, 팜냄새가 난다. 구불구불하고 살가운 길의 실루엣이 그 속에 들어 있다. 삶을 비켜가지 않고, 멀리서 그저 바라보지도 않고, 곧장 그 속으로 뛰어드는 그가 책 속에 있다.

그는 말한다. "삶 속에서는 언제나 밤과 사랑이 원인과 지극보다 먼저 다." 《자전거 여행》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또 말한다. "살아서 아름다운 것들은 나의 기갈에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그것들은 세계의 불가해한 운명처럼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빈곤한 한 줌의 언어로 그 운명에 맞선다. 나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책머리에> 중에서) 실령 그가 패배한 것이 라면, 그것은 그의 '기없는 수사학'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패배였으리라. **이용한**



《자전거 여행》

김훈 지음 | 생각의 나무 | 328쪽 | 값 9,800원